

『새가정』을 통해 본 1950년대 기독교가정생활운동*

윤은순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가정생활위원회의 발족과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전개

III. 기독교가정생활론의 내용과 윤리

1. 기독교가정생활론의 확립과 전파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주부의 탄생
3. 강조된 모성과 여성인식
4. 사랑·결혼에 대한 교육과 성윤리
5.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가정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11>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099527)

• ABSTRACT •

Christian Family Life Movement in the 1950s through 『New Home』

Research Prof., Yoon, Eunsoo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Christian Family Life Movement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hristian family properly in response to the secu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World War II. After liberation, the Christian community tried to establish a Christian stat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Christian families. Accordingly, the 'Christian Family Life Committee' was launched and the family life movement was conducted through education on family theory and lectures. Above all, through 『New Home』, they tried to spread the Christian Family Life Theory.

The discussions presented in 『New Home』 are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hristian Family Life Theory,' 'a rational and scientific housewife,' 'an emphasis on motherhood,' 'chastity and marriage,' and 'a family serving the nation.' The Christian Family Life Movement has the character of a culturalistic enlightenment movement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o help the nation in the chaotic Korean society of the 1950s.

Key words: The Christian Family Life Movement, Christian Family Life Theory, Christian Family Life Committee, 『New Home』, Housewife, Motherhood

I. 들어가는 말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1950년대 한국사회는 혼돈 그 자체였다. 전통의 가치관과 새롭게 유입된 사상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복구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던 시기였고, 전후 재건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남녀를 망라하여 부과되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을 시작하였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새나라 건설에 초석을 놓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새나라를 기독교국가로 염원할 때 가정의 기독교회는 우선이 되는 조건이었다.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대사회적 운동이자 기독교 가정과 여성을 위한 윤리와 지침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사회와 특히 여성들의 생활방식과 의식에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며 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을 살핌으로써 한국 기독교가 인식한 가정관과 소망했던 가정생활론, 아울러 당시 사회의 분위기 및 가정생활운동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1950년대에 집중한 이유는 한국전쟁 후 혼란스런 사회에 대하여 기독교가정관을 세우고 운동으로 전개하던 초기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1960년대부터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애육위원회(가족계획사업)가 가정생활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등 오롯한 기독교계 내부의 생각이나 사업보다 외부의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과 『새가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¹⁾ 1955년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기독교가정생활협회로 이어지고 있고, 『새가정』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1950년대 사회의 모습은 이후 산업화를 거쳐 현대 한국사회의 토대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시기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활동양상을 살피고 이를 이론적으로 전파했던 『기독교가정』과 『새가정』의 내용을 살펴 1950년대 기독교가정생활론의 내용과 그 안에 작동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보고자 한다. 잡지는 편집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집단적 이론이나 사상을 형성하는 매체이다. 기사 및 광고를 망라하여 분석함으로써 『새가정』의 편집의도와 필진으로 대표되는 당시 기독교계의 의도와 논의 방향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II. 가정생활위원회의 발족과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전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4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동아기독교가정생활문제연구대회’에 한국 대표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가정생활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가정생활의 변화와 생활의 세속화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이 시작되었다. 젊은이들에게 가정생활을 교육함으로써 가정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교육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기독교 각 교파별로 위원회를 두는 한편 연합회를 결성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결혼, 가정생활, 아동지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곧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중국, 인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까지 전파

1) 『기독교가정』, 『새가정』의 반공주의를 분석한 윤정란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윤정란, “기독교여성지의 창간과 반공주의:1949년-1950년대”, 『역사문화연구』37(2010).

되어 가정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교회간 연합으로 진행되었다.²⁾

1954년 11월 2~16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 중앙기독교예배당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버마, 홍콩, 태국, 인도 등의 대표들이 모여 가정, 결혼, 가정생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연구대회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에서도 한소제, 주정일, 강득순, 이주선, 허길래³⁾, 송정률이 참석하여 ‘가정생활의 기독교화’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회에 12개국 대표 120여 명이 참여하여 기독교 가정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였고, 한국 대표자들은 한국에서도 가정생활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정에 대해 연구할 것을 다짐하였다.⁴⁾ 대표 중 한명이었던 송정률은 “기독교가 살아움직이는 구원의 능력을 목적으로 할 때,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통해 가정생활의 기독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운동으로 당시 한국사회에 가정생활운동이 절실하다고 하였다.⁵⁾

사실, 마닐라대회 참석 전에 선교사 허길래(C. Howard)를 중심으로 국제선교회 소속 중국선교사로서 가정생활운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던 하이버(I. Highbaugh)를 초청하여 가정운동을 시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마닐라대회 전까지 별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⁶⁾

2) 이르마 하이바우, “기독교 가정운동 그 현황과 방향”, 『새가정』1955. 6., 56-57.

3) Clara Howard, 1895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출생하여 1916년 미국 앤드루 진문대학과 개럿 신학대학 졸업하고 1923년 8월 미국 남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내한하였다. 개성 호수둔여학교 교사로 지내며 부설 유치원 설립하여 유아교육에 헌신하였다. 이화여전 보육과 교수로 역임중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했다. 해방 후 다시 내한하여 이화여대 아동교육과 교수를 지내고, 1955년 대전 중앙감리교회 내 대전보육전문대학을 개설하고 초대 학장을 지냈다. 1964년 정년 퇴직 후 귀국하여 생을 마감했다.

4) 허길래, “[東亞細亞諸民族의 기독교가정생활연구대회] 마나라회의는 이렇게 모였다”, 『새가정』, 1955. 2., 8-9.

5) 송정률, “마나라 대회의 참뜻”, 『새가정』, 1955. 2., 10.

6)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서울:

1954년 11월 마닐라대회가 끝난 후 한국에서 가정생활운동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느낀 허래, 전영택, 한소제, 안광국, 송정률, 하워드, 천순봉 등이 1955년 2월 8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첫 모임을 가지면서 ‘가정생활위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산하 위원회로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적 도의적 혼란에 있는 처지에서 하루 바빠 가정 정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가 꾸러졌고, 우선적으로 무산되었던 하이버의 초청을 재개하여 전국의 고등학교, 대학, 교회, 총회 등에서 강연하는 것을 필두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을 본격화해 갔다.⁷⁾

가정생활위원회는 1957년 1월 회칙을 제정하고,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정생활위원회”로 공식명칭을 정하였다. 여기에는 각 교파 대표, 각 선교부 대표, 기독교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였고, 계획부(기획부), 출판부, 재정부를 조직하였다. 위원장 한소제, 부위원장 미스 로스·송정률 목사, 서기 미세스 언더우드·임봉선, 회계 박남길, 출판부장 전영택, 재무부장 양매륜, 계획부장 안신영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은 평신도들로 거의 꾸러졌다. 1959년부터는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성공회, 성결교, 침례교 교단에서 지도급 인사들을 파견시켜 가정생활위원회의 현안을 파악하고 활동하였다. 특히 각 교파 여성교회에서 파견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다.⁸⁾

가정생활위원회는 출판물의 간행 및 보급, 지도자 강습회 개최, 매년 전국적 가정주간 행사실시를 기본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각 부별로 활동하였다. 우선 계획부는 매년 가정주간을 설정하여 그 주간을 완전히 ‘기독교 가정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1956년 첫 가정주간 주

양서원, 1996), 100.

7) “국제적인 기독교가정생활운동 한국에 전개”, 『새가정』 1955. 7., 6-7.

8) 김수진, 『가정의 40년 길을 따라서:가정생활위원회와 새가정4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1996), 53-55.

제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로 정한 이래, 해마다 가정주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기독교 가정의 의미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운데 가정생활위원회에서 준비한 주간예배서를 배포하고 포스터 등으로 이를 홍보하면서 강습회도 실시하였다. 또, 1955년 하이버를 초청하여 전국순회 강연회를 연 이래 전국대회와 지도자강습회를 통해 기독교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현시대에 필요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였다. 특히, 남녀가 거의 같은 수로 참석하였고 참석자의 70% 이상이 평신도였으며 전국 각지 지방에서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가정생활운동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방위원회의 조직에도 힘쓴 결과였다. 1955년 가장 먼저 대전지방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안동, 청주, 춘천, 광주, 마산, 군산, 김제, 목포, 전주에 지방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대학교수, 병원장 등 지역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 내 교회간 연합으로 가정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⁹⁾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재정은 초기에는 미북장로교, 미감리교, 캐나다 선교부 등의 거의 외국 선교부의 보조로 이루어졌다. 가정생활위원회는 NCC의 보조를 받는 한편, 국내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찬조금을 모았다. 교계 인사들과 가정주부들도 조금씩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여유롭지 못한 재정에 출판사업은 큰 힘이 되었다.

출판부는 문인이었던 전영택이 초대 부장에 선임되면서 1956년 『어떤 것이 기독교가정인가』, 『가정생활과 어린이 교육』을 필두로 1958년 『사회적 성장』, 1959년 『가정·교회·사회』, 『어린이 성교육』 등의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이후로도 가족문제, 청소년상담, 성교육, 인구문제, 여성신학 등에 관련한 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였고 매년 가정예배서를 발행하였다.¹⁰⁾

9) 위의 책, 91-115.

그런데, 무엇보다 출판으로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전개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잡지 『새가정』이다. 『새가정』은 대한기독교서회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발간한 잡지 『기독교가정』의 후신이다. 일제로부터 벗어난 후 대한기독교서회가 처음으로 발간한 정기간행물이 여성과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정생활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1955년이지만, 사실 해방 후 기독교서회가 『기독교가정』을 발간하면서 새나라 건설에 ‘새사람’과 ‘새가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미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을 문서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첫 발행된 이 잡지는 안타깝게도 한국전쟁으로 곧 중단되었다. 1954년 대한기독교서회가 피난갔던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새가정』이란 이름으로 재개되었다.

“해방 후 더구나 6·25 이후 사태같이 쏟아지는 출판물이고 잡지요 신문이요. 하지만 실상 가정에서 살림에 몰두하시는 여러분 주부나 가족들이 저녁 후 등불 밑에서 머리 맞대고 나눠 읽으실 책을 얻어 보기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찌 가정에서는 살림살이의 주인이시요 또 숫자로 보아 우리사회의 그 주력부대를 이루고 계신 여러분이 이렇듯에도 문화의 울타리 밖에 버려움을 받고 계셔야 옳은 일이겠습니까...”¹¹⁾

위의 글은 『새가정』의 지향과 가정과 여성을 위한 잡지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편집자의 말이다. 실제로 『새가정』은 일간신문에 ‘가정의 어머니와 언니들을 위한 가정잡지’, ‘가장 건실한 부인잡지’라는 광고문구를 내걸고 여타 일반 여성지와 차별성을 두었다. 이렇듯 『새가정』의 지향과 목적이 가정생활운동과 큰 연관이 있으므로 가정생활위원회에서 발간하

10) 위의 책, 67-71.

11) “편집자의 편지”, 『새가정』 1권1호, 1954. 12., 90.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대한기독교서회는 1956년 12월 11일 가정생활위원회로 잡지 발행업무를 이관하고 가정생활위원회와 각 교과여전도회연합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가정』의 발간과 보급을 통해 가정생활운동의 저변이 일반사회로 확대될 수 있었고, 기독교가정생활운리를 피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가정』의 운영에 각 교단 산하 여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신도연합회가 참여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기독교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YWCA, 가정생활위원회의 7개 기관이 『새가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위원회’와 별도로 ‘새가정위원회’를 결성하고 잡지발행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56년 첫째 한소제가 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1960년까지 그가 위원장을 맡았고, 김필레, 전영택, 양매륜, 이효덕, 신의경, 김폴린 등 3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기독교서회로부터 인수할 당시 재정난으로 폐간 직전까지 갔던 『새가정』은 연합여선교회가 참여하면서 그 출판부수가 초기 기독교서회 때보다 3배로 늘었고 재정에도 탄력이 생겼다. 연합여선교회는 찬조금과 모금활동, 저축, 바자회, 부동산 구입에 이르기까지 『새가정』의 재정확보에 노력하였다.¹²⁾

『새가정』의 편집은 초기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맡았고, 인수 이후 가정생활위원회 편집부가 담당하다가 새가정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진 뒤 편집부를 따로 두었다. 전영택과 김필레를 필두로 하여 한소제, 김폴린, 신의경, 안신영, 오기선, 유호준, 언더우드 부인, 로즈 부인 등 기독교여성운동과 가정생활운동에 헌신하던 인물들로 꾸려졌다. 대개 교양강좌, 설교, 가정살림에 관한 생활정보, 어린이코너(교육), 문예, 시사, 가정예배서 등의 체제로 이루어졌다.¹³⁾

12) 김수진, 『가정의 40년 길을 따라서:가정생활위원회와 새가정40년사』, 167-180.

편집부에서는 1년의 특집을 미리 계획하였는데, 1961년의 내용을 보면 ‘새생활 설계’, ‘가정과 주부의 사회진출’, ‘자녀교육’, ‘기독교인의 경제문제’, ‘가정과 사회와 세계’, ‘기독교인의 생활태도’ 등이 기획되어 있다. 모두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가정과 사회에서 적용하여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안병욱, 유달영, 김재순, 김형석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¹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1950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처음 시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로 확장해갔다. 『새가정』은 교도소, 군대, 베트남 파병 군인들에게도 보내졌다. 기존 사업 외에 가정상담소 운영, 새가정연구원 운영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도 동참하게 된다.¹⁵⁾

III. 기독교가정생활론의 내용과 윤리

1. 기독교가정생활론의 확립과 전파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목적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바르게 깨우쳐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데 있다. 이는 기독교계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기독교가정의 건설을 제창한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기독교의 자기탈선적 행위를 비판하고, 현재 기독교활동이 정치·경제·문화의 각 부분에서 시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지난 날 ‘기독교적 정치윤리’를 세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현대사회의 주동력

13) 김수진, 위의 책, 306쪽.

14) 김수진, 위의 책, 205쪽.

15)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서울: 양서원, 1996.), 104-106

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요 공포자가 되기 위하여 새나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사회적 활동은 해방 후 새나라 건설의 포부와 희망을 기독교가정을 통해 이루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했다. 기독교가정운동은 새나라 건설을 위해 사람이 새로워야 하고 사람이 새롭기 위해서는 가정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생활의 정화에 기독교가정운동의 가장 큰 방점이 있었는데, “오늘날 구원이 네게 이르렀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가정적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¹⁷⁾

사회정화를 위해 가정이 선택된 것은 가정이 가장 작으면서도 기본이 되는 사회단위이기 때문이었다. 기독교가정생활론에서 가정은 “동물적 집합체가 아닌 윤리를 가진 인간공동체”로서, “인륜적 농도가 가장 강대한 사회”로 정의되었다.¹⁸⁾ 가정은 인간의 생활에 최초로 주요한 감화를 주는 사회조직으로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장 긴밀한 친교로 결합된 조직이며 가정 자체가 인간존재의 목적으로 인식되었다.¹⁹⁾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로서 가정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가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정은 사회와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고, 인간의 본능을 제한시켜 사회의 정당한 도덕표준을 세우는 곳”으로 규정되었다. 기독교가정은 타락한 사회의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단위로서 모든 것을 창조할 근거지로 지목되었다.²⁰⁾ 기독교가정은 지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이며, 기독교인들이

16) 파수군, “시론/ 현대사회와 기독교”, 『기독교가정』1권 1호, 1948. 12., 4.

17) 김춘배, “창간사”, 『기독교가정』1권 1호, 1948. 12., 2-3.

18) 김석목, “사회윤리의 정화”, 『새가정』 1954. 7·8., 2-8.

19) E.트루벨러드, P.트루벨러드 공저, 김재준 역, 『가정생활의 재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11.

20) 엄요섭, “우리의 가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하자”, 『새가정』1954. 10., 22-24.

도의적 경제적 종교적 민주주의적으로 건전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사회, 국가, 경제, 도의, 정치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²¹⁾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공동체 가운데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윤리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윤리를 강화하고 가족간 윤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윤리적 기틀을 잡는 요건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기독교가정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이며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찌기 기독교의 가족윤리가 조선에 소개되면서 내외법, 축첩, 과부 개가금지, 조혼 등의 가족제도는 비난을 받았다. 기독교는 전통적 유교윤리에 맞서는 가족윤리를 소개하고 이것으로의 전환을 여러 책들과 현장을 통해 노력하였다.²²⁾ 조선기독교서회 설립 후 1920년대부터 기독교는 개인의 생활태도와 가정문제를 다룬 책들을 출간하였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나아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및 기독교인으로서의 태도, 개인생활윤리 및 사회윤리까지 포함하는 것들이다.²³⁾

개인과 가정 사회로까지 확장시켰던 기독교윤리에 대한 기독교서회의 활동은 해방 후 첫 정기간행물로서 가정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라는 논리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새사람도 새가정에서 새나라도 새가정에서”를 모토로 하여 창간된 『새가정』은 정치·사회·경제 모든 문제가 오로지 건강한 가정을 건설함에서 그 해결의 토대가 되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당시 잡지들의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분위기와 구별되는 건실한 가정을 위한 건강하고 실질적이며 신앙적인 잡지

21) 심재원, “독서안내 가정생활의 재건”, 『새가정』4(7), 1957. 7·8., 72.

22)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에 대한 연구-애니베어드(Annie L. Baird)의 『고영규전』(Two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12(2006), 82-83.

23) 서신혜, “1920~30년대 기독교 출판 서적의 양상과 그 시대적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54(2013), 347-352.

로 기획되었다.²⁴⁾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주부의 탄생

기독교가정생활의 중심은 ‘주부’에게 있었다. 최초의 여성잡지로서 1906년 상동청년학원내에서 발행된 『가명잡지』에서도 이미 사용된 용어인 ‘주부’는 일제말까지 공적 영역에서 호명되었다. 그런데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맞물리면서 사적영역의 주체로 새롭게 구상되었다. 주부는 가족을 재건하고 가치관을 재편성하는 가정의 주관자로 등장한다.²⁵⁾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사상적 전달체인 『새가정』에서 ‘가정’이라는 말은 ‘여성’ 혹은 ‘주부’이라는 용어로 등치되어도 무방할 정도여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역할은 여성을 향한 것이었다. 여기에 『새가정』에서 요구하는 주부는 기독교가정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하나 더 부과되었다. 기독교계는 해방 후 새나라 건설의 목표를 기독교국가로 상징하고 있었고, 전쟁 후 국가 재건의 기초가 가정이 되면서 주부는 국가와 민족을 재건하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기독교 여성은 가정과 국가재건에 더하여 ‘기독교가정’ 건설이라는 종교적 사명까지 부여받았다. 여성은 현명한 주부로서 가정살림을 책임지고 가족의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자녀교육, 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인적 교육자로서 이상적 기독교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담당자로 호명되었다.

그런데, 기독교가정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시된 것 중 하나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이었다.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주부에게는 과학지식의

24) 김춘배, “새해와 함께-창간1주년을 맞이하여”, 『새가정』1955. 1., 2-3.

25)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2007), 391-394.

함양이 요구되었다. 『새가정』의 편집진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에 가정생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주부들이 생활 합리화, 과학화를 부르짖고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것이다.”²⁶⁾

현대는 과학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부의 과학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으로서, 심지어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주님을 믿는 가정들이 선봉이 되어” “이상적으로 가정을 과학화 해나갈 때 이웃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이었다.²⁸⁾

생활의 합리화·과학화에 대한 강조는 1950년대 내내 전개된 신생활운동과 연결된다. 해방 후 신국가 건설운동 구상에서 시작된 신생활운동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재건과 경제부흥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1950년대 내내 정부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946년 ‘신생활연구회’ 조직 이후, 1951년 <전시생활개선법>과 1952년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의식주의 과학화”라는 생활개선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²⁹⁾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가정생활운동에서 과학적 생활을 실천하는 주부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켰다. 생활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데서 가정과 나라의 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었

26) “편집후기”, 『기독교가정』1949. 5., 63.

27) “주부와 과학지식”, 『기독교가정』 1949. 5., 2-3.

28) 민병용, “가정과학”, 『새가정』4(10), 1957. 10., 60-64.

29) ‘전시국회의 제 임무’, 『동아일보』 1951년 12월 20일자; ‘전시생활개선법 시행세칙 23일 국무회의 통과’ 『동아일보』 1952년 5월 25일; ‘생활개선운동전개’, 『경향신문』 1953년 9월 3일.

다.³⁰⁾

합리적·과학적 주부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주부는 의식주의 모든 부분을 개선해야 했다.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의 구태와 무지를 벗어나 근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영양학, 보건위생, 주거환경의 개선과 계획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었고, 『새가정』에는 각종 가정요리법, 세탁법, 옷 만드는 법, 살충제 사용법, 청소방법 등의 다양한 생활개선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³¹⁾ 과학적 지식을 탑재한 주부는 문학적 교양과 가정살림의 실용지식을 겸비하고 가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정의 매니저’로서 가정의 금전관리, 일관리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 ‘관리’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³²⁾

그런데 『새가정』에 소개되는 가정요리가 ‘로열샌드위치’, ‘새우카나페’, ‘건포도비스켓’ 등 오븐을 사용하거나 서양요리법이 소개되어 일반가정의 형편과 맞지 않았던 것은 당시 여타 여성잡지들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가정생활의 과학화, 합리화에 덧붙여 이를 수행하는 주부의 태도는 ‘명랑’해야 했다. 새벽에 일어나 대문밖까지 청소한 후 골방에 들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보수적인’ 화장과 ‘단아한’ 차림으로 다양한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의 옷과 귀가시간까지 챙기는 일은 가족 전체를 ‘명랑’하게 하는 주부의 역할이었다. 끊임없는 가사노동은 가족을 위한 당연한 것이었고, 시종 밝고 즐거운 태도까지 유지해야 했다.³³⁾ 가정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영원히 해야 할 사명이었다. 미국 주부의 예를 들어 부부간

30) 김춘배, “창간사”, 『기독교가정』1권 1호, 1948. 12., 2-3.

31) “(특집 새생활의 구상)식생활의 개선과 신구상”, 『새가정』 1954. 6., 14-19.; 정인국, “부엌과 주부생활”, 『새가정』 1955. 1., 33-37.; “가계부는 어떻게 꾸미나”, 『새가정』 1955. 1., 31-32.

32) 朴楠吉, “새가정의 設計”. 『새가정』 1955. 8., 61-64.

33) 최효섭, “명랑한 주부가 되련다”, 『새가정』4(9), 1957. 9., 36.; 조경목, “五十年來의 주부로”, 『새가정』 4(9), 1957.9., 37.

교양형성의 노력, 의복을 바꾸고 장식품을 이리저리 놓아보며 가정 분위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남편을 가정으로 이끄는 주부의 ‘교양과 ‘센스’로 칭송받았다.³⁴⁾

한편, 『새가정』은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여성들의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주부가 남편과 자녀의 내조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다가 결국 불행해질 수 있다며 여성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도 자녀와 남편의 성공과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주부의 역할에 자아실현의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중의 과제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이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³⁵⁾

결국 가정생활의 관리자인 현명한 주부는 아내, 어머니, 여성 자체로서 모두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부’였다. 능부는 ‘아내로서의 교양’, ‘어머니로서의 교양’과 ‘사회적으로 교양을 두루 갖춰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에 노력해야 할 존재’였다.³⁶⁾ 가정을 알뜰히 가꾸가는 주부가 되기 위한 기사를 실는다는 『새가정』 편집진의 의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던 신생활운동에서 바라는 여성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3. 강조된 모성과 여성인식

조선후기 여성의 지위는 유교의 중법질서가 강화되면서 가부장적 체제 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할 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남녀가 동등하다고 정의

34) 李柱雲, “생활하는 家庭”, 『새가정』, 1955. 2., 2-4.

35) 權喜環, “主婦의 愛情과 犧牲”, 『새가정』, 1955. 9., 7-10.

36) 신동욱, “여성과 교양” 『새가정』 1954. 7., 24-27.

하였고, 규방 안에 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하여 한국 근대 여성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기독교를 접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깨우침을 얻은 여성들이 근대적 교육을 받고 조금씩이나마 사회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새가정』의 여성인식도 남녀평등의 대전제 하에 그 기원을 기독교에서 찾았다. 『새가정』의 필자들은 일부일처제도가 기독교의 고유한 제도이고 남녀 모두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의미에서 피차간 인격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여성의 지위가 낮은 곳은 모두 기독교의 감화가 박약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해방 후 일제의 잔재였던 공창폐지법안 통과에 성공한 것도 기독교 여성 김말봉, 박현숙 등의 개혁운동에서 생겨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여성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였다.³⁷⁾

그러나 남녀동등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보조자로서 그 위치가 가정 내로만 수렴되었다. 해방 후 신사조의 유입과 여성의식의 변화, 한국전쟁 후 어려운 경제사정은 여성의 직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새가정』에서 여성의 직업은 거의 전적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권장되었다. 어머니로서 여성은 가정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고, 부득이하게 경제적 상황 때문일 경우에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용인되었다.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면 사회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할 때도 여성은 어린이 교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등의 “모성애를 발휘하며 남자가 하기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기독교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중대한 천직을 명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직업을 가짐으로써, 빈곤에서 오는 가정의 비참을 극복하며 소질을 살려 사회에 공헌해야 할 것이었

37) 김재준, “그리스도와 여성해방”, 『새가정』1권1호, 1953, 12., 8-10.

다.³⁸⁾ 여성에게 직업은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계만을 위한 선택이었고, 부득이하게 직업을 가질 경우에도 모성성에 기댄 것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전후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정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의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지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가족의 보호와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남성의 부재는 여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을 안게 하였고, 생계를 위한 여성의 노동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주부로서의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전쟁으로 남성이 동원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남성과 비교하여 50%에 육박할 정도였다.³⁹⁾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깊은 안방 있던 아가씨가 피난살이 방구석에서 여러 가족들과 뒤섞이고, 대갓집 마님네가 국제시장의 보따리 장사 대열에 뛰어드는” 상황이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정』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성임을 강조하고 “어머니가 되는 것만이 여성의 久遠이며 行途”라고 하였다.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눈물겨운 모성의 수고는 여성으로서의 존귀한 과제이며, 여성의 가장 소중한 일감은 남성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내, 누나, 딸로서 남편, 동생, 아버지를 통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여 가부장적 의식을 강조한다.⁴¹⁾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 주최로 기독교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결혼과 가정, 직업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을 때, 여성에게 결혼과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직업은 가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가져야 할 것, 혹은 가정경제를 위해

38) 신연식, “크리스찬 부인의 직업문제”, 『새가정』4(4), 1957. 4. 22-24.

39) 이입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14(2003), 251-260.

40) “愛情을 基點으로 본 女性史의 一斷面”, 『새가정』1954. 5., 8-13.

41) 金基錫, “女性論”, 『새가정』1954. 1., 2-10.

서만 부득이하게 취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은 여성을 결국 가정 내로만 위치시키는 한계를 보여준다.⁴²⁾

일련의 글 속에서 여성을 사회의 개별적 주체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 내지 내조자로 자리매김하여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바라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수용 이래 여성개화에 영향을 준 기독교의 긍정적 면 뒤에 있는 근대적 가부장제 의식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의 본질을 모성으로 한정시켜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며 자녀와 남편의 사회적 발전을 돕는 것을 바람직한 모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당시 인식의 한계라 할 것이고, 이는 일반사회에서도 여전한 형편이었다.

또한, 『새가정』은 당시 기성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전후파여성’들을 재래의 도덕에 반항하는 방종한 여성으로 비판하였다. 이들의 성관념, 금전관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가정내의 여성과 분리시키고 타자화 한다. 대신, “팔을 부르건고 섬섬옥수로 재건의 진흙을 주무르는 여성”을 칭송한다. 전후 남성이 당황하는 동안 희생적 모성애와 각오를 발현하여 살림을 지탱해나가는 여성의 강점을 찬양하고 이러한 여성들로서 불우한 운명이 극복될 것이라 하였다.⁴³⁾

가정 내의 여성과 가정 밖의 여성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신성한 모성성으로 추앙하고 후자는 타자화하는 모습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일반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가정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자율권이 확장되지만, 한편으로는 모성이란 이름으로 그것에 규제되고 지배되는 담론의 모습이다.

42) “信友學舍 좌담회 직업 결혼 가정”, 『새가정』4(3), 1957. 3., 36-41.

43) 김덕린, “운명에 반항하는 여성군”, 『새가정』 1955. 7., 28.

다만, 당시 일반적인 여성잡지가 가정 밖의 여성들의 현실을 소개하며 이를 감각적으로만 소비하여 그들의 삶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가정』에서는 선정적 보도는 지양하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혼인, 이혼, 부양, 상속, 위자료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고 직장 여성들을 위한 여성근로법(출산육아 휴가 및 수당, 위생 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여성불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 이태영의 ‘가정법률 상담실’ 코너를 통해 전달되었다.⁴⁴⁾

4. 사랑·결혼에 대한 교육과 성윤리

성과 결혼은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기독교인에게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남녀가 부부가 되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1949년 『기독교가정』 창간부터 1967년 정년퇴임까지 『새가정』의 발행인이었던 김춘배는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우선적으로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여성을 성적 존재가 아닌 인격자로 대우하고 존경하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그는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인류의 대사라고 보고, 부부는 가정의 시작인 동시에 가정의 중심이며, 기독교는 가정과 종교사상을 결합시킨 인류의 영광이라고 하였다. 정치형식이나 경

44) 이영복, “職場女性과 母性衛生”, 『새가정』4(4), 1957. 4., 31-33.; 이태영, “왜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새가정』4(7), 1957. 7., 64-66.; 이태영, “호주제도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새가정』4(10), 1957. 10., 68-69.

제조직, 일반사회제도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결혼관계와 가정은 영구불변의 자연적 질서라고 정의하였다.⁴⁵⁾

또 다른 필자는 이상적 기독교가정으로서 “새가정의 윤리”는 부부 상호간의 자유의지와 도움과 인격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남존여비의 관념을 버리고 역경을 견디는 마음의 무장, 무엇보다 사랑이 결혼의 출발이라고 하였다. 또, 결혼이 사사로운 것이 아닌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진단하였는데, 이는 결혼이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우선되는 제도이고, 가정은 전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⁶⁾

때문에 결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인격이나 생활태도의 고려없이 하는 결혼은 가장 무모한 것이며, 이는 도박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연장자의 경험으로 주선되는 중매는 젊은이들을 적격한 애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나, 중매자의 선입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인연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유행하는 허례허식의 결혼식 행태를 비판하면서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한편, 안정적인 결혼과 가정건설을 위한 계획적 출산과 성교육 또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중요 교육주제였다. 일찍이 한국 기독교는 성교육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없을 때 선구적으로 성교육을 시작하였다. 『새가정』의 편집위원이었던 김필레가 쓴 『성교육(Sex Education for Girls)』(1935, 조선기독교서회)는 ‘성교육의 필요’, ‘사춘기란 무엇인가’, ‘정당한 교제와 난잡한 행동’, ‘약혼과 결혼의 正路’, ‘불행한 결혼 생활’, ‘산아제한’,

45) 김춘배, 『기독교생활철학』, (서울: 성문학사, 1949), 108.

46) 박기준, “우리들의 理想 家庭論”, 『새가정』 1(1) 1953. 12., 2-7.

47) 안병관, “결혼은 도박이 아니다”, 『새가정』 1955. 6., 8-11.; 강수약, “중매결혼의 또다른 한모-연분의 발견을 돕기 위하여”, 『새가정』 1955. 6., 15-16.

‘독신생활’, ‘정당치 못한 성적 생활’, ‘성과 사회’, ‘성에 대한 건전한 정신적 태도’의 10장으로 구성되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행동규범을 제안하였다.⁴⁸⁾ 『새가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남녀 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계획적 출산법, 피임을 위한 정확한 배란일 계산법, 당시 만연했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경계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⁴⁹⁾

성교육과 관련하여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이성교제를 꺼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성간 장벽을 헐어버리는 것이 인간성을 아름답게 하는 데 보탬에 된다고 하였지만, ‘불건강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열에 휘말리지 말 것, 친구들과 함께 할 것, 어두운 곳을 피할 것 등이 당부되면서 젊은 여성들이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경계하였다.⁵⁰⁾ 『새가정』은 당시 전후 무분별한 외국 풍속의 모방 속에 연애형태가 정상적인 궤도에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개방된 연애풀조 가운데 상처받는 이는 여성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가 젊은 여성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여성이 스스로를 단속할 것을 당부하였다.⁵¹⁾

이처럼 『새가정』은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과 상당히 구체적인 피임법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성지식에 무지했던 여성들을 도왔다. 공개적으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지 않을 때, 객관적 시각과 지식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이고 순결한 이성교제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

48) 서신혜, “1920~30년대 기독교 출판 서적의 양상과 그 시대적 의미”, 353.

49) 최선희, “반드시 성공하는 계획 출산법”, 『새가정』 1954. 9., 70-73.; 고순덕, “성행동의 발달-공상적인 가설을 피하고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자”, 『새가정』 1954. 10. 45-49.; 황달룡, “간단하고 정확한 칼렌다 피임법”, 『새가정』 4(3), 1957. 58-59.

50) 江北花, “남녀교제 열두고개”, 『새가정』, 1955. 2., 21-29.; 江北花, “남녀교제 좌우명”, 『새가정』 1955. 4., 42.

51) 광종원, “이성간의 애정문제에 대하여”, 『새가정』 1955. 1., 43-46.

으로서의 성윤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일반 여성잡지들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세태와 이를 향한 비판과 동반된 관음적 시선을 배제하고 기독교가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성윤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5.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가정

새사람을 어디에서 구할까 인간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 백성이 완전하고 이 나라가 잘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이 새로워야 한다. 사람이 새롭게 위하여는 가정이 새로워져야 하겠다. (중략)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입히며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데 나의 집이 나의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이다. 새사람의 각오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⁵²⁾

위의 내용은 『기독교가정』의 창간사의 내용이다. 초기 대한기독교서회의 이념인 “인간 자체를 깨치는 문화적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언설로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⁵³⁾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 창립 초기 내한하여 강연한 중국 선교사 하이버는 기독교가정생활의 원리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여 자녀 본위로 신앙생활을 하여 자녀로 하여금 기독교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간 신뢰와 신앙에 가정생활운동의 강조점이 있었다.⁵⁴⁾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가정생활운동에서 신앙과 교리보다 사실 강조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이었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국가를 위한 희생, 민족을 위한 도덕성이 우선시되었다. 이는 해방 후 새나라 건설의 의지가 강하게 기독교가정건설론 안에 녹아있었기 때

52) 김춘배, “창간사”, 『기독교가정』1(1), 1948. 12. 2-3.

53) 전택부, “민족개화와 기독교”, 『새가정』2(4), 1955, 13.

54) “국제적인 기독교가정생활운동 한국에 전개”, 『새가정』 1955. 7., 6-7.

문이다. “기독교가정의 형성과 건실한 운영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기에 음주문제도 기독교 윤리적 차원보다 국가적 식량문제, 국민성, ‘조국’의 중대한 시기를 망치는 해악으로 인식되어 거론되었고 주부가 이를 없애야 가정을 명량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⁵⁵⁾

같은 맥락에서 『새가정』은 전후 미국문화의 범람 속 여성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사교댄스열풍을 당시의 “비참한 사회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위험한 욕심”으로 비판한다.⁵⁶⁾ 국민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38선하’의 국민은 미국의 ‘댄스’보다 ‘건전성’, ‘과학’, ‘정신면에서 철학이나 종교신앙’의 서양문화의 근본적인 것을 배워야 했다.⁵⁷⁾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의 종교, 철학, 과학은 배워야 할 것이었지만, 세속적 대중문화는 민족감정과 생활형태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경원시 되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속 문화는 기독교윤리적 차원이 아닌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에 봉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면서 국민은 정부와 유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고 경제재건을 위해 자급자족의 생활에 노력해야 할 것이었다. 밀수와 원조금 유용 등 당시 만연했던 사회적 비리는 민족 전체를 쪼먹는 행동으로 지탄받았고, 가정의 소비자는 국산품 장려, 사치품 배격에 노력해야 했다.⁵⁸⁾ 새생활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간편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가민족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했다.⁵⁹⁾

55) “주부·가정·술”, 『기독교가정』 1949. 6., 2-3.

56) “한국에 와 있는 외국여성에게 묻는다”, 『새가정』1(1) 1953. 12. 14-17.

57) 嚴堯燮, “새로운 時代와 댄스”, 『새가정』, 1955. 8. 13-16.

58) 한승인, “경제재건은 우리 손으로 가능한가”, 『새가정』 1954. 4. 24-25.

59) 김호직, “생활개선은 이렇게 하자”, 『새가정』 1955. 1., 22-26.

기독교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가정』에는 시국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실렸다. 특히 반공기사의 비중이 크다. 크게 나뉘보면, 세계정세 관련 보도, 공산주의에 대한 체험담, 승공을 위한 독려 등이다.

세계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의 대립 구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소련의 세계공산화 의도에 대한 비판, 동유럽 국가들의 동향, 미국의 반공정책에 대한 소개들이다. 미국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대소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더구나 일제시기 반종교운동을 벌이고 해방공간에서 기독교인과 대립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은 컸고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근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⁶⁰⁾

한국전쟁 중 공산주의와 대결한 경험, 공산당에 당한 피해 등의 직접적 체험은 전쟁 후 대거 등장하고, 특히 매년 6월이 되면 특집으로 다뤄졌다. 공산주의자에게 겪은 악행이 세밀하게 묘사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와 비판, 나아가 절대로 공산세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⁶¹⁾ 또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여성들의 성적 타락과 여성해방의 미명하에 가정을 등진 상황을 비판하고 순진한 여성들을 선동한 공산주의의 정치적 책동을 비판한다.⁶²⁾

결론적으로 공산체제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새가

60) 이주운, “굳어져가는 防共態勢”, 『새가정』 1954. 11. 25-27.; 편집부, “한국 휴전의 이면”, 『새가정』 1955. 3., 46.; “시사해설-신문의 신문”, 『새가정』, 1955. 4., 53.; 이병진, “우리도 사람구실 해야겠다”, 『새가정』4(4), 1957., 66-70.; 최준, “인공위성과 쏘련의 내전공세”, 『새가정』4(11), 1957. 11., 60-61.; 최준, “소련의 과학공세와 자유진영의 결속”, 『새가정』4(12), 1957. 12., 80-82.

61) “추모수기-고 김백일장군 미망인-김영화”, 『새가정』 1954. 1., 57-60.; 백동숙, “나의 남편은 공산도배에게 참살되었다”, 『새가정』 1955. 1., 72-73.; “특집 <내가 겪은 6.25>”, 『새가정』 1957. 6., 14-21.; 신동기, “6·25와 나”, 『새가정』 1959. 6.

62) “혁명에 속은 여성상”, 『새가정』1(1), 1953. 12., 71-73.

정』은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치열한 투쟁으로서의 국제전이었으며, 전후경제재건도 누가 먼저 잘살게 되느냐의 국제적 재건전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공산주의에 승리하는 길임을 명확히 했다.⁶³⁾

이처럼 강력한 반공주의가 제창되면서, 올바른 자녀교육을 통해 기독교가정과 새나라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하게 『새가정』의 시사관련 기사 가운데 냉전상황과 반공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수많은 전쟁고아에 대한 거론은 1950년대 단 2건뿐이다.⁶⁴⁾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 내부와 거대한 국가담론에만 귀속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한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물론, 이는 1950년대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타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창문제, 통속적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기사 등도 등장한다.⁶⁵⁾ 시사분야별 관심 정도가 달라지지만,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애초 목적이 가정생활의 기독교적 정화를 통해 세속적 타락을 극복하고 기독교 국가건설을 목적했기에 사회적 상황과 국가담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V. 나가는 말

기독교인들에게 성과 결혼, 이를 통한 가정의 결성은 하나님의 창조질

63) 林運大, “시국은 이렇게 돌아간다”, 『새가정』1(1) 1953. 12., 20-21.; 최준. “힘에는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새가정』4(7), 1957, 58-59.

64) “그들에게는 아직 微笑가 없다 少年의 거리 希望市를 찾아”, 『새가정』 1955. 7., 15-17.; 洪玉順, “混血兒와 入養問題”, 『새가정』, 1955. 7., 40-42.

65) 許逸, “〈現地루포〉 倫落된 女性의 實態”. 『새가정』4(1), 1957. 1. 18-21.; 南九里, “女性和 大衆映畫”. 『새가정』4(2), 1957, 49-51.

서 속에 있는 것으로서 가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관이다.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가르치고 부부는 상호간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개항 이후 한국 기독교는 재래 불평등한 남녀의 관계를 남녀평등의 새로운 가족윤리로 대체시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여성 교육과 이를 통해 인재 양성,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해방과 한국전쟁 후 복잡한 사회상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기독교계는 성과 사랑, 결혼과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정기간행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독교 가정생활론과 가족윤리를 강조하고 보급하기에 노력하였다. 가정생활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새가정』의 발행을 통해 기독교계를 넘어서 사회일반으로 가정생활운동을 확장시켰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2차 세계대전 후 생활의 세속화에 대응하여 기독교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새나라 건설의 희망을 기독교 국가로 상정했던 기독교계는 먼저 가정의 기독교화를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였다.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보다 본격적인 가정생활운동이 전개되었다. 가정생활위원회는 가정론의 교육, 전국 단위의 가정주간 실시,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가정생활운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새가정』을 통해 기독교 가정생활관을 보급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지키기에 노력하였다.

『새가정』에 나타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가정관의 확립과 전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주부, 남녀평등의 여성인식과 모성의 강조, 순결하고 이성적인 성과 사랑,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가정이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람과 가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타락한 사회의

문화를 바로잡고 국가와 민족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정생활관의 기본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정의 중심이 되는 여성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가정을 관리하는 주부로 탄생하였다.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비중이 월등했기에 『새가정』은 여성에 대한 모성을 강조하고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교육과 지식 전달, 다양한 가정관리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다. 시국과 관련된 내용, 특히 반공주의적 기사들은 기독교가정의 목적이 국가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애초의 목적에서 비롯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가정생활관에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내면화한 가운데 1950년대의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서 사회와 국가, 민족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작용하였다. 이는 개항 후 기독교가 국권침탈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노정하고 있었던 것과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가정생활운동은 해방 후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염원과 민족주의적 특징이 담긴 문화적 계몽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새가정』에 나타나는 기독교가정생활운동 통해 1950년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기독교의 대사회적 인식, 한국 가정문화 형성과 기독교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가정생활변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하는 지표로 삼아 후속 연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기독교가정』

『동아일보』

『새가정』

김수진. 『가정의 40년 길을 따라서: 가정생활위원회와 『새가정』 발자취』. 서울: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1996.

김춘배. 『기독교생활철학』. 서울: 성문학사, 1953.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 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2007), 387-416.

서신혜. “1920~30년대 기독교 출판 서적의 양상과 그 시대적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4(2013), 345-372.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에 대한 연구-애니베어드(Annie L. Baird)의 『고영규전』(Two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75-96.

윤정란. “기독교여성지의 창간과 반공주의: 1949년-1950년대.” 『역사문화연구』 37(2010), 103-145.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2003), 251-278.

트루벨러드, E., 트루벨러드, P. 공저. 김재준 역. 『가정생활의 재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허길래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편. 『한국유아교육의 선구자 허길래』. 서울: 양서원, 1996.

논문투고일: 2022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2차 세계대전 후 생활의 세속화에 대응하여 기독교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기독교계는 기독교 가정의 건설을 통해 기독교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이에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정론의 교육, 강연회 등을 통해 가정생활운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새가정』을 통해 기독교 가정생활관을 보급하려 노력하였다.

『새가정』에 나타난 논의들은 ‘기독교가정관의 확립’,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주부’, ‘모성의 강조’, ‘순결한 성과 결혼’, ‘국가에 봉사하는 가정’이다.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은 1950년대의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담긴 문화주의적 계몽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가정생활운동, 기독교가정생활론, 기독교가정생활위원회, 새가정, 주부, 모성
